주간 사우디 정세
(2018.12.21 - 12.27)

2018.12.27.(목), 주사우디대사관

※ 금주 주요 동향

o Salman 국왕은 사우디를 방문한 Al-Azhar 사원 大이맘(Grand Imam)인 Ahmed El-Tayeb 과 면담을 통해 이슬람의 정수를 교육·전파하고 있는 Al-Azhar 사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

* Al-Azhar 사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위치한 모스크이며, 순니파 신학과 샤리아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모스크 내 대학이 현재 Al-Azhar 대학으로 국유화되어 운영중

1. 국내동향

가. 국왕 및 왕위계승자(SPA)

o Salman 국왕, 이복형 Talal bin Abdulaziz 왕자에 대한 조의 표명(12.23)

- Salman 국왕은 Talal bin Abdulaziz 왕자 서거소식에 대하여 조의를 표함.

* Talal bin Abdulaziz Al Saud 왕자는 Salman 국왕의 이복형제이자, 중동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Al-Waleed bin Talal 왕자의 아버지이며, 12.22(토) 타계

o Salman 국왕, Al-Azhar 사원 大이맘(Grand Imam) 면담(12.24)

- Salman 국왕은 Al-Azhar 사원의 大이맘(Grand Imam)이자 이슬람 학자인 Ahmed El-Tayeb를 면담하고, 이슬람 세계의 다양한 현안에 보탬이 되고, 올바른 이슬람을 알리고 있는 Al-Azhar의 역할을 높이 평가

o Mohammed 왕세자, King Faisal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참관(12.23)

- Mohammed 왕세자는 King Faisal 공군사관학교의 임관식에 참석, 생도들의 졸업기념 에어쇼를 관람

나. 각료회의 주요 결과(미개최)

o 정부 예산 발표 차주(次週)의 각료회의(12.25.수)를 미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금주 각료회의는 미개최

다. 기타

o Abdullah Al-Sheikh 슈라위원장, 이집트 대통령 면담 (12.26, Okaz紙)

- Abdullah Al-Sheikh 슈라위원장은 카이로 방문 계기 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

- El-Sisi 대통령은 사우디 지도부와 국민이 그간 이집트를 위해 기울여 준 노력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특히 양국 간 의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어 온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 Abdullah Al-Sheikh 슈라위원장은 Salman 국왕의 안부인사를 El-Sisi 대통령에 전하고, 모든 분야에서 이집트와의 협력증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 등을 희망한다고 발언

2. 대외관계

o Mohammed 왕세자, 파키스탄 방문 예정 (12.23, Okaz紙)

- Okaz紙외 주재국 다수 언론은 Fawad 파키스탄 공보부 장관의 말을 인용, Mohammed 왕세자가 2019년 2월 파키스탄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

- 상기 외, Fawad 공보장관은 1월에는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가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부언

o 외교부, 리비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테러활동 비난(12.27, Al-Riyadh 紙)

-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위치한 외교부 건물 테러와 관련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발생한 정부기관 공격, 이라크 북부지방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비난

- 주재국은 일련의 테러 사건에 대하여, 국제법과 관습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호히 지적하였으며, 희생자 가족과 정부에 위로와 조의를 표명

3. 산업·경제

o MAWANI(항만청), 빈 컨테이너 비용 절감 (12.25, Al-Riyadh紙)

- MAWANI(항만청)은 "국내상품 수출 촉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무역활동 촉진, 사우디 항만 내 수출업자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부언

  * 이니셔티브: △주베일 항구 내 빈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 절감, △수출업자가 항구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수령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정박료 지불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 Eng. Saad Al-Khalb 항만청장은 동 이니셔티브를 시행하여 수출업자들이 53%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GDP에서 비석유부문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16%에서 50%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주재국 상품수출규모 2905억 리얄 돌파 (12.25, Al-Riyadh紙)

- 주재국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3/4분기 주재국 상품수출규모가 2905억 리얄을 돌파하여, 작년 동기(1963억 리얄) 대비 48% 증가

- 주재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상품수출 규모는 2018년 3/4분기 2319억 리얄로 작년 동기(1494억 리얄)대비 55.3% 증가하였으며, 수출에서 석유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3/4분기 76.1%에서 2018년 3/4분기 79.8%로 증가

- 비석유상품의 수출규모는 금년 3/4분기 586억 리얄로 작년 동기(469억) 대비 25% 증가

o 주재국, 11월 일반 소비자 물가 하락 (12.27, Al-Riyadh紙)

- 주재국 통계청은 일반 소비자 물가에 대한 월례보고서(2018년 11월호)를 웹사이트에 게재

- 일반 소비자 물가는 2018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 106.8%보다도 0.2%가량 떨어진 106.5%를 기록하였으며, 통계청은 주택·상수도·전기·가스분야가 0.8%, 요식업계가 0.2%, 의류와 통신분야가 각각 0.1% 등 주요 분야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4. 사회

o 보건부, 2019년 고혈압 퇴치의 해 지정 (12.25, Al-Riyadh紙)

- Tawfiq Al-Rabia 주재국 보건부장관은 2019년을 고혈압 퇴치의 해로 정하여,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퇴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Tawfiq 장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혈압이 있음에도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합병증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조기 발견 이후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9년을 고혈압 퇴치의 해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

o 문화청(General Culture Authority), “문화의 날” 행사 개최((12.27, Al-Riyadh紙)

- 문화청은 12.28(금)-30(일)간 Al-Ahsa(주재국 동부)에서 “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문학의 밤, 그림 그리기, 연극 공연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기획, 개최한다고 발표

- 한편, 문화청은 12.28(금) “Al-khaima Night” 사우디 연주단의 음악 공연도 개최한다고 밝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음악·예술이 대중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끝.